



바이오 로드맵 - 수급, CNS, RNA 3가지 촉매

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에 우호적 수급 전망. 단기 주요 이벤트로는 JP모건 컨퍼런스(디앤디 파마텍 MASH 발표)가 있으며, 연초에 Merck/한미약품의 MASH 2b상도 발표될 예정. 기술 이전 모멘텀으로는 알츠하이머 개발사 기술 이전 성공시, 관련 개발사들에 대한 기대감 확대 예상. '26년 핵심 테마로는 '중국/아시아 바이오'와 'RNA 치료제'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. 이에 따라, RNA 밸류체인 기업에도 주목할 필요 있음.

◎ 수급효과: 코스닥 활성화 정책,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수혜

- >> 올해 바이오의 주가 상승으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수급 우려가 있으나, 코스닥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호적인 투자심리가 유지되고 있어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.
- >> 코스닥 활성화 정책 1) 소득공제 한도 상향(3천만 원→5천만 원), 2)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율 상향 등이 보도되고 있음.
- >> AI, 반도체, 바이오, 로봇 등 첨단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출범, 모험자본 투자가 의무화 되는 종합투자자제자(IMA) 등의 수급 효과 또한 기대.
- >> 알테오젠의 이전상장 결정과 내년부터 코스닥 시가 총액 등의 상장기준 강화로 쏠비기업 퇴출 병행도 예상되어, 시장의 신뢰도를 쌓아온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중심의 수급 혜택 예상.

◎ 단기 주요 이벤트: JP모건 컨퍼런스와 MASH 치료제.

- >> J.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(1/12~15일) 개최 예정이며, 국내 기업 중에서는 디앤디파마텍이 MASH 치료제 DD01 (GLP-1/GCG)의 2상 중간 연구 데이터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.
- 머크/한미약품의 Efinopegdutide(GLP-1/GCG)의 2b상이 12월 종료 예정으로 '26년초 발표 예상.

◎ 신경퇴행성질환(CNS)과 RNA 분야 주목

- >> 알츠하이머 및 신경퇴행성질환 치료제와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이전 또한 주목.
(지난 11/28일 발간한 제약/바이오 인사이트: 해외 알츠하이머 실패 소식에 국내 영향은? 참고)
- CNS 질환 치료제 개발사 중, 한 곳이라도 기술 이전에 성공한다면 기술 이전 모멘텀 보유 종목들의 동반 상승 기대.
오스코텍/아델의 ADEL-Y01(타우 항체, 1상), 디앤디파마텍/퍼스트바이오의 NLY02(RIPK2 저해제, 전임상), 에이비엘바이오 BBB셔틀 플랫폼, 알지노믹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RZ-003(APOE4 표적 RNA치환 효소 백터)
- >> 2026년 주요 키워드 #중국 또는 아시아 바이오, #RNA 떠오를 것으로 전망. 12/9일 싱가포르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Wave의 RNA 기반 비만 치료제 WVE-007의 1상 중간 결과, 근육 손실 없이 제지방 보존하는 긍정적 효과 확인. 2026년 RNA 치료제 개발사 M&A/기술 거래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#울릭스, #알지노믹스, #에스티팜에 주목
알지노믹스는 IPO 상장 유망기업으로 상장 초반 급등 전망. RNA 기업들의 기업가치 상향시키는 역할을 할 것.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12월 9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